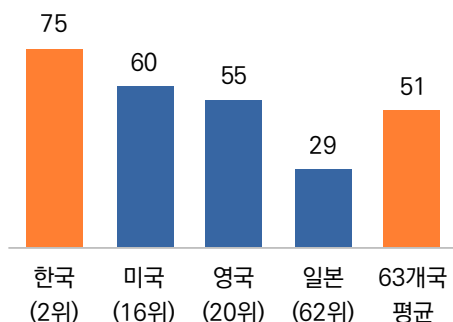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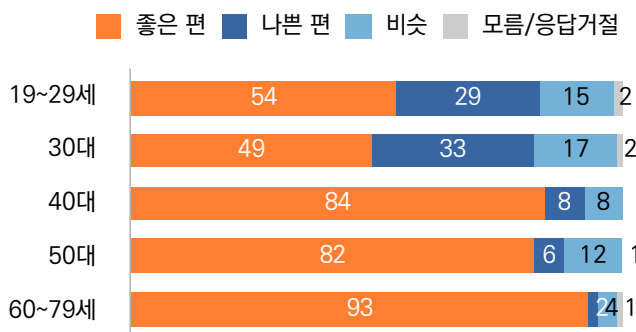
“나의 삶은 부모세대보다 좋은 편이다” 한국인 2030과 40대 이상 세대간 평가 간격 매우 커!

- ▶ 국제조사기구인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 63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현 세대를 평가하고 다음 세대를 전망하는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. ‘나의 삶은 부모 세대보다 좋은 편’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한국은 75%로 63개국 평균 51%보다 24%p 높았으며 조사한 63개국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.
- ▶ 한국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현 세대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는데, 4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평가율은 80%대 이상인 반면 20,30대의 긍정평가율은 각각 54%, 49%로 세대간 평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.

[그림] 나의 삶은 부모세대보다 좋은 편이다**
(그렇다 비율, 국가별, %)



[그림] 나의 삶, 부모세대 대비 평가** (한국인, 연령별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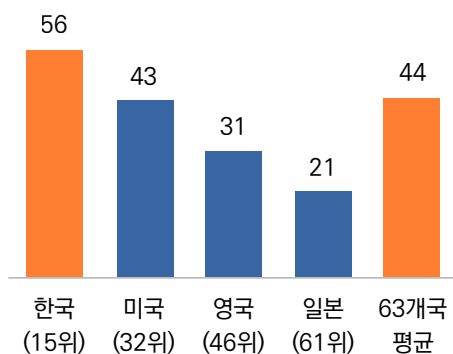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: 갤럽리포트 '현 세대 삶 평가, 다음 세대 삶 전망', 2023.02.15. (한국조사: 전국 만 19~79세 1,035명, 모바일조사, 2022.08.23~31, 국제조사: 2022년 8~10월 63개국 Gallup International 75주년 조사)

**3점 척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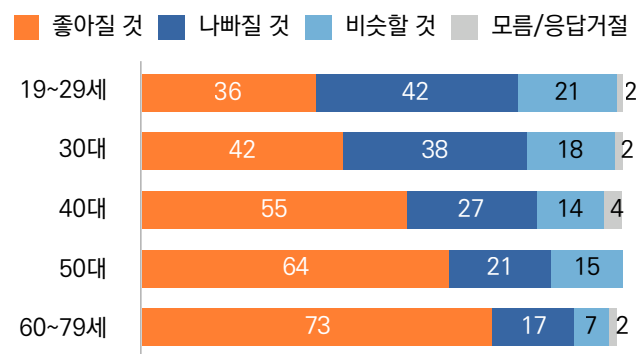
◎ 한국인 20대, 10명 중 4명(42%)은 ‘다음 세대의 삶 나빠질 것’이라고 생각해!

- ▶ 이번에는 현 세대 대비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. ‘요즘 어린이들의 삶은 나보다 좋아질 것’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한국은 56%로 63개국 평균 44%보다 12%p 높았다.
- ▶ 연령이 낮을수록 다음 세대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았는데, 19~29세 응답자의 42%가 ‘다음 세대 삶이 나빠질 것’이라고 응답한 반면, 60~79세 응답자의 73%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현 세대 삶 평가와 마찬가지로 세대가 바라보는 전망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요즘 어린이들의 삶은 나보다 좋아질 것이다**
(그렇다 비율, 국가별, %)



[그림] 요즘 어린이들의 삶, 나의 삶 대비 전망
(한국인, 연령별, %)



*자료 출처: 갤럽리포트 '현 세대 삶 평가, 다음 세대 삶 전망', 2023.02.15. (한국조사: 전국 만 19~79세 1,035명, 모바일조사, 2022.08.23~31, 국제조사: 2022년 8~10월 63개국 Gallup International 75주년 조사)

**3점 척도임